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함이다
(사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현교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진근



교회 설립 제46주년 기념주일

십자가의 비밀과 부활의 능력 위에 이 교회를 세우소서

1-5부예배시 성찬식, 오후에 기념 음악예배

지난 46년은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고, 교회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다.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또한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일으켜 세우 오셨다. 마흔여섯 살의 청년교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중년의 교회를 향해서 마땅히 행할 바를 더욱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계시다.

교회 설립 초창기부터 강조되어 온 '천국일꾼 양성', 그리고 70년대 들어서면서 추가된 '말씀의 파수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신령한 예배'가 더해졌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려는 중대한 목표를 한가지씩 더해 주셨고, 교회는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이 목표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왔다. 그리고 이 일련의 목표들은 1998년도 말부터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5대 목표로 정리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비밀과 부활의 능력 위에서, 하나님되어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구체적인 목표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민감한 영의 귀와 한결음씩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신다.

이 5대 목표를 위해서 최근 교회는 예배 전 찬양의 신

철과 찬양대의 활성화를 통해 신령한 예배 세우기 / 젊은이가 드리는 5부예배의 신철과 활성화, 청년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겨울과 여름의 단기선교, 전역장학생 선발, 교육세미나, 제2교육관 증축 등을 통한 천국일꾼 양성의 구체적인 실천 / 지속적인 농어촌 낙도 전도사역과 지방교회 지원사업, 전교교적인 태신자 품기 사업, 그리고 교회주변 집중전도 등을 통한 민족 복음화의 꾸준한 실천 / 단기선교의 활성화, 평신도선교사 및 단기선교사의 발굴 훈련 파송, 외선부 사역의 활성화를 통한 동남아 선교의 교두보 마련 등을 통한 세계 선교 비전의 체계적인 실천 / 복지단 증축, 구제대상의 상황 조정 및 구제대상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을 통한 이웃 사랑 실천 등에 힘써오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을 하나로 묶으시고, 순종케 하심으로 이 일들을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이다.

교회 설립 46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오늘 오후 찬양예배는 기념 음악예배로 드린다. 성로암찬양대와 뱀엔 찬양대 및 오케스트라가 연합하여 드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많은 성도들이 기도 중 동참해야 하겠다. 한편, 오늘은 제5차 성찬주일로서 1-5부예배시에 성찬식을 갖게 된다.

‘교육세미나 보고서’ 발간

지난 6월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99 교육세미나 보고서'가 책자 형태로 발간되었다. 당회원 및 교역자를,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 전원에게 배부기 위해 발간된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교회학교 교육의 실무를 맡고 있는 기백명의 교사들에 의해 제출된 현장성 있는 건의사항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교회학교 및 교육연구소 관계자들은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이 당회의 검토를 거쳐 사안에 따라 채택되고, 실제적인 논의를 통해 현실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시 시작되는 교구 및 구역장 양성훈련

여름사역으로 잠시 멈추었던 교구양성훈련 및 남녀 구역장 양성훈련이 각각 9월 14일 및 15일부터 아래와 같이 재개된다.

이에 따라 각 교구 및 구역의 일꾼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시작되는 하반기 양성훈련을 위해 기도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다.

후반기 구역장 양성훈련

날 짜	남성 구역장	여성 구역장
9월 15일	위임목사	위임목사
9월 22일	양육의 원리(교구 담당 목사)	구별된 삶(교구 담당 목사)
9월 29일	구별된 삶(교구 담당 목사)	생활 영성(교구 담당 목사)
10월 6일	남성구역공과	영적 전쟁(교구 담당 목사)
10월 13일	생활 영성(교구 담당 목사)	시험과 율육에서 승리하는 삶(교구 담당 목사)
10월 20일	영적 전쟁(교구 담당 목사)	위임목사
10월 27일	시험과 율육에서 승리하는 삶(교구 담당 목사)	교회생활의 원리(교구 담당 목사)
11월 3일	남성구역공과	효과적인 돌봄(교구 담당 목사)
11월 10일	교회생활의 원리(교구 담당 목사)	온사개발과 봉사(교구 담당 목사)
11월 17일	효과적인 돌봄(교구 담당 목사)	위임목사
11월 24일	온사개발과 봉사(교구 담당 목사)	구역장의 리더십(교구 담당 목사)
12월 1일	구역장의 리더십(교구 담당 목사)	안식일과 주일(교구 담당 목사)
12월 8일	안식일과 주일(교구 담당 목사)	선교명령의 수행(교구 담당 목사)
12월 15일	선교명령의 수행(교구 담당 목사)	

2000년 파송 단기선교사 모집

자격: 본교회 세례교인, 소속기관장의 추천받은 자, IMTC 및 MTT자격증 소지자 중 선교위원회에 의해서 선발된 자.

사역기간: 1-3년

지 원: 왕복항공비 및 선교비의 60%

* 자세한 사항은 선교위원회로 문의(구내전화 356번)

파송국가	인원	사역에 필요한 특기사항
스리랑카	2명	어린이사역, 컴퓨터교육, 제자양육
수 단	3명	의료(간호), 컴퓨터교육, 어학교육
수리남	2명	어린이사역, 심방 및 제자양육
인 도	2명	학원전도, 제자양육
케 나	1명	의료(간호) 및 제자양육



김 창 일 목사

바벨론이 당하는 망신

(이사야 47:1-7)

“차녀 말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아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굵고 아리따다 창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맺들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창함을 받지 못하리라 ...”

1. 바벨론이 어떻게 망신을 당하였습니까

바벨론은 본래 부자집의 딸처럼 부강하여 부러운 것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은 너무 교만하고 방종하고 음란하고 잔인한 죄를 거듭 범하면서 도 양심에 가책조차 없었습니다. 양심이 쇠인을 맞은 것처럼 되어 약한 사람을 죽일 때 “제발 살려 주세요요”라는 애원을 코웃음치고 동정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해 선언하셨습니다.

“네네 네네 태켈 우바르산”(단 5:25)

“네네 네네”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시대를 끝나게 하겠다는 선언이고 “태켈”은 하나님께 나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선언이고 “우바르산”은 너의 권세와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지겠다는 선언입니다.

(1) 티끌에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차녀 말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아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1절)

“보좌가 없어졌으니” 즉 나라가 망하고 조권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단 방석에 앉던 몸이 대리 티끌에 앉게 되었습니다.

(2) 맺들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맺들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2절)
“맺들을 갈라”는 말은 포로생활을 뜻합니다. 천하의 장사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의 영장을 누웠으니 벌치므로 블레셋 사람에게 결박을 당하여 마침내 두 눈이 뻔혔습니다. 그리고 맺들을 돌리는 나귀 신세가 되었습니다. 맺날에 맺들을 돌리는 일은 짐승이 아니면 노예가 하였는데 삼손이 그 맺들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쁜 차녀 바벨론이 매를 맞으며 맺들을 돌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3) 사치품을 버리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네 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2-3절)
얼굴을 찡든 수건을 버리고 예복도 긴 쫓치마도 벗어 버리고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는 망신을 당합니다. “강을 건너간다”는 말은 도망을 간다는 뜻입니다.

(4) 잠잠히 흑암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딸 갈대아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5절)

잠잠하다는 말은 연근 바탈입니다. 마음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울해도 하소연을 못하게 하고 무엇이 부족하여도 달라는 말도 못하게 하면서 아예 입을 봉하여 연근을 봉쇄합니다. 이런 때가 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람도 상대방의 세력을 꺾어 놓고 연근을 봉쇄시키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더욱 말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날에 입을 벌려 찬송을 부를 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흑암”이란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몸은 감옥에 들어가고, 영은 지옥에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흑암에는 소망이 없고 위로와 웃음이 없습니다.

(5)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네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창함을 받지 못하리라”(5절)
“주모”는 주인되는 어머니입니다. 바벨론은 세계를 요리하며 제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주모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때에는 바벨론은 자기네가 무슨 죄를 범하여도 무사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다시 주모라는 말을 들을 수 없는 날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지나치게 교만하였습니다. 그는 친 명이나 되는 많은 고관들을 궁중에 불러 놓고 하나님께 제사드려도 사흘 사흘만 금은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며 밤이 늦도록 자기네가 섬기는 우상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때에 벨사살 왕이 앉은 맛은큰 배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이 광경을 보던 벨사살 왕의 얼굴이 사마리아로 변하였습니다. 그날 밤이 밝기 전에 벨사살 왕은 바사 군에게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망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사가 신지자는 170여년 전에 예언하였습니다.

2.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구주께서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니라”(4절)
하나님은 신전의 구주자이십니다. 그 때로 하나님은 택함을 받은 백성이 어떠한 어려운 처지에 떨어졌어도 거기서 회개한 자를 반드시 구원해 내시어 보호하시고 영육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강함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기 백성을 고통된 자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실천하는 것은 진실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간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요셉과 다

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하여 심판하셨습니다.

3.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 바벨론이 유다의 죄를 다스리면서 자신은 반성하지 않았습니까

“전에 내가 바 백성을 노략으로 내기 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붙였거늘 ...”(6절)

하나님의 백함을 입은 유다가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은 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신지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위장자들과 백성을 책망하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타락한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바벨론을 동맹으로 사용하시어 범죄한 유다를 징계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취급하는 바벨론은 반드시 자신도 그런 죄가 있는가를 반성해 보든지 정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였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잘못이 생각나면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죄인을 다스리는 것이 정당한 데도입니다.

만일 죄인을 다스릴 책임을 맡은 자가 열매, 배 배 더 악한 것을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징계하는 동맹국의 책임을 감당하는 마당에 자신을 검토해 보았어 했는데 그렇지 않고 유다 민족을 잔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바벨론은 심판 받게 되었습니다.

(2) 바벨론이 유다의 죄를 다스릴 때에 무관심하게 지켜보았습니까

“... 내가 그들을 중용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명예를 심히 무겁게 매우랴”(6절)

이런 사람이 죄값으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게 될 때에 이것을 지켜본 사람이 자신을 반성하지 않고 편만이나 나리 죄인이 형벌을 받아 우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잔인하게 대한다면 죄인이 당하는 형벌을 그에게 옮기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은 유다 민족이 잘못으로 망할 때에 지나치게 과묵하고 동정된 면목만큼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포로 중에는 나이 많은 사람을 부릴 때에는 잘대 살지 못하고 죽었으므로 아예 먹지도 않고 죽기까지 일한 시집만입니다. 이렇게 인정이 없고 잔인한 바벨론이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3) 바벨론은 유다를 징계할 때에 너무 교만하였습니까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로 생각지 아니하였도다”(7절)

유다 민족을 징계하는 바벨론은 자기네가 능한 줄로 착각하였습니다. “우리는 힘이 강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었다” 이런 교만으로 유다 민족을 업신여기고 또한 하나님까지 업신여겼습니다. 이 교만 때문에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4) 바벨론은 지나치게 사치하고 음란하였습니까

“... 네가 다시는 굵고 아리따다 창함을 ...”(1절)
사치에는 반드시 음란이 그 뒤를 따릅니다. 바벨론은 너무나 더러운 음란 죄를 범하였습니다.

4.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죄값으로 벌을 받는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검토해보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형벌을 받습니까. 저도 이런 죄인은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반성하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의 잘못을 지나치게 비방하고 자꾸하면 자신의 잘못을 기껏말로 숨기는 자입니다.

둘째로, 나에게 남보다 좋은 것이 있으면 그 때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신한 일을 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내가 남보다 몸이 건강하고 권세가 높고 돈이 많으면 그것들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신한 일을 해야 합니다. 바벨론은 남보다 좋은 것을 많이 가졌을 때에 지나치게 교만하여 하나님까지 업신여기다가 망하였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여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셋째로 하나님에게 매를 맞을 때에 원망하는 자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기 전에 신한 일에 충성하고 만일 잘못하여 매를 맞게 된다면 즉시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람하시는 그 시간에도 내 생명의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기회와 신한 일을 할 기회도 얼마가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값으로 망하는 사람을 보고도 인연이 거지 말고 저들이 이제라도 회개하도록 기도해 주면서 자신을 반성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



김성권 목사

하나님으로부터 숨기

(창세기 3:7-12)

“...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무서운 유혹과 우리의 변명

하나님으로부터 숨는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우리 밖에도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으로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것이 어인들의 본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말씀들 중 가장 근본이 되는 장들 중 하나로서 인간의 불순종의 여러식물과 수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시험과 타락을 아주 단순하게 묘사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절). 이 질문 때에는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전략가치의 복선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 뱀의 질문을 받은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행동들을 진리라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쪽으로 합리화하고자 할 때가 많습니니다. 너무 자주 사단의 거짓말을 믿고, 하나님의 뜻 위에 우리 자신의 의지를 올려 놓곤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유들을 만들어 벌으로 마음을 온갖 핑계와 변명들로 가득 채우며,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식으로 자신을 설득합니다.

숨으려는 죄의 본성

금지된 실과를 먹기 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창 3:8).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는 놀라운 특권을 한 번 상실해 보십시오. 그들은 조금전 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더불어 이 아담답고 고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귀한 특권을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몸을 숨겼습니니다. 이 최초의 남자와 여자는 극단적인 슬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놀라운 신 하나님, 우리의 의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과 더불어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피하여 숨었습니다. 왜입니까? 타락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본성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헛된 수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9절). 우렁찬 소리가 동산에서 울려 나왔

습니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을 찾으십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 사람들은 열매없는 것을 얻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대개 그것들은 문제만 일으킬 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찾고 추구하는 모든 노력과 시간들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한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릇된 일을 범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수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수고를 통해서 자신들이 추구하던 것을 얻었으나 그 대가도 함께 얻어야 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후회와 수치 있을 것이니”(창 3:10). 그러나 그들은 얻은 것이 있었더라면 단지 나뭇잎으로 옷을 묶어 만드는 정도의 지혜뿐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지 마시고 진리를 볼드십시오.

그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당신이 진실로 숨고자 하신다면

그리스도 안에 숨으십시오.

고백을 통해 나아가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대신 하나님께 나아와 있습니다. 죄를 감추는 대신 드러내고 고백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는 수치와 죄책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오랫동안 무시한 채 지나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굳어집니다. 죄를 지었으면 곧 바로 회개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게 나누어지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첫 반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릇된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사할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찾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 우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 줍니다. 때로는 고분을 통해서, 때로는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나 사경, 찬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찾고 계

습니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시 139:7).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에게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요 3:16).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계 22:17). 그러나 이 초청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오면 영접할지니라”(요 5:43).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시로부터 숨으려고 합니다. 그의 일체를 피하거나 무시하고자 합니다. 그를 찾지도 않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

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은 그러저러한 역사상의 일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중요한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림과 더불어 역사는 끝이 나고 영원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아무리 자신을 성도로서 가장할지라도 오직 진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숨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거만하여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던 이 땅의 모든 왕들이었습니니다. 그들은 영광을 스스로 취하려 했던 모든 유명한 자들이었습니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긴 모든 죄고의 부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강한 자들과 존경받는 자들이었습니니다. 실로 모든 죄의 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숨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음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이 비밀의 영광이 임할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서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골 1:26-27).

성도 여러분! 비밀이 드러났습니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이셨습니다. 숨지 마시고 진리를 볼드십시오. 그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당신이 진실로 숨고자 하신다면 그리스도 안에 숨으십시오. 지금도 당신을 찾으시며 그의 영원한 나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더 이상 나 자신 앞에서 숨어있기를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권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여 영원한 평화와 기쁨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의 길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구원의 강을 주셔서 하나님과 화해되도록 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숨기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

어린 양의 진도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이미지는 대개 유유히고 겸손하며, 결코 화를 내지 않는 것이지만, 개시록 6장 16절에서는 죄인 위에 진노를 부으시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어린 양께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구원의 강을 주셔서 하나님과 화해되도록 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숨기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

세계 선교



마따에서의 치열한 영적 전쟁

수리남에서 안식절 선교사

이곳 수리남 마따의 성도들과 함께 한국의 새벽기도회와 같은 기도 모임을 아침에 가지려고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마따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따는 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빗물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전기는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하루 6시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기계장도 소용없는 만 배라도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안됩니다. 새벽기도가 시작되니까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인들의 방해와 추장을 앞세워 교회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해오며,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갈등 등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여 저들을 주님 앞으로 바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있는 일꾼, 바른 인도자가 되어 하나님 주시는 그대로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따의 성도들이 복음으로 무장되어 어려운 시련을 넘어서 이기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민족 복음화

이런 기쁨 함께 나눠보실래요?

김 경 에(전사, 17교구)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전도해 보았으나 힘들고 어렵게만 여겨졌기에 내에게는 기도의 사명만 부여하셨다고 여기며 전도와는 거의 무관하게 지냈기에 실제로 전도한다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김성관 목사님 부임하신 후 선교에 관한 말씀을 하시 때마다 내 마음에선 전도 못한다는 고정관념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하나님! 나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라고 속삭였다. 그렇게 기도한 지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닷없이 한 권사님으로부터 새해부터 월요일에 함께 전도하자는 제의를 받게 되었다.

마음에는 갈등이 생겼다. 주일에 예배드리고 이곳 저 곳에서 봉사하다가 귀가하면 집안일과 피로가 겹쳐 바로 다음날인 월요일엔 쉬고 싶은 생각이 앞섰다. 그리고 교회까지 거리도 멀 뿐만 아니라 시작 당시에는 날씨도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포기할까 망설이기도 하였다.

권유에 못이겨 마지못해 자와타의만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추운 날씨에도 눈에 보이는 결심도 없이 힘들었지만 집에서 출발할 때보다 마치고 귀가할 때면 너무나 기쁨이 넘쳤다.

27일이 거의 다된 어느 월요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두 사람을 전도하게 하심으로 대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였다. 한 분은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 잘하게 되었고 또 한 분은 예배드리기 전 먼저 주보에 실린 설교 요약을 읽고 중요한 부분만을 줄을 긋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였다. 항상 김성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말씀과 찬양에서 감동을 받는다며 가족, 형제, 친구에게 전도하겠다고 하였다. 다음주일에는 청년 3명이 5부예배에 참석하기로 약속을 해 놓은 상태. 요즘은 택시에서나 어디서든 전도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인데 신실한 일꾼이 되도록 이들을 위해 매일 기도한다. 이런 기쁨을 충현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주간 온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하요셉 평신도선교사

예수님의 평강을 전하며 알렉산드리아에서 문안드립니다.

참 하나님인신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 그분의 이름이 세상의 지존자로 마땅히 경배와 찬양을 받아야 하심에도 저희가 있는 이곳을 포함하여 이 넓은 중동 땅의 수많은 이슬람 국가들은 하나님(알라)의 이름으로 가면을 쓴 사단 앞에 전혀 반항 없이, 이유 없이 무릎 꿇고 경배하며, 그 사단이 창조주 참 하나님임을 잘 못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조차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님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려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7월 9-11일에는 이집트 남쪽 X마을에 다녀왔습니다. 2년 전에 방문하여 교인들을 섬방하고 말씀을 전할 때보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어 아직 연약하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목회자의 사려미를 줄 수 있을 만큼 성장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가난한 지역이긴 하지만 아직도 사려미 드라는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인수는 어린이까지 포함하면 300명 정도가 되는데 한 달 헌금은 한국 돈으로 4만원 정도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이 마을에는 2천 여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교회에는 잘 나오지 않는 명목상의 기독교인들과 이집트 정교회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을 섬방하는 것만은 40도가 넘는 무더위에 적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물을 마셔야 했고, 밤에는 파리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지만 오랜만에 만난 교인들과 교제를 나누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국경과 민족과 문화와 언어를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 12시가 넘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 동안 아랍어로 성경봉독 인도는 하였지만 아랍어로 설교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저의 서투른 아랍어로 약간 어려움은 있었지만

용기 주시고 격려해 주신 하나님께 감

사를 드립니다.

헌자식 이상의 귀한 선물들

열심있는 농부가 이삭을 더 많이 줍니다

1교구의 이육기 권사(새가족부 교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 중언이 되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바로 자신에게 하신 명령임을 늘 잊지 않았다. 그런 이 권사는 몇 년 전 자신의 가게로 물건을 사러온 한 청년에게 전도해야겠다는 불같은 심령이 끓어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직장

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밤 10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을 방문하여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 나올 것을 권하였다. 이십수년을 하나님과의 상관계이 살아온 청년이 교회 나올 결심을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지라 처음 한동안은 주일 아침마다 그를 데리고 다녀야 했다. 그런 그가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현재 부부가 요한과 마리아전도회를 통해 열심히 신앙 생활하고 있다. 또 이 권사는 새가족부에서 학생을 많이 양육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그들의 가족들도 그나랑 서지나지 않게 된 것이다. 담임을 맡은 한 자매를 돌보아도 전화를 통해 알게 된 그 자매의 어머니와 언니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현재 새가족부에서 믿음의 짝을 이루고 있다. 이런 이 권사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줍듯 전도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어 말씀을 전하게도 하셨다.

이렇듯 전도에 열심인 이 권사에게 하나님은 양육의



▲ 새가족부 수료식을 마치고, 권속에서 두 번째가 이육기 권사.

은사도 허락하셨다. 이

권사는 우리 교회의 성경연구원, 신학교의 여성지도자과정 등을 통해 말씀 훈련을 받았었는데, 이 모든 훈련 과정들이 새신자들이 굳건하게는 문제들을 성경에 근거하여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배려였다고 고백했다. 자신에게 맡겨 주신 영혼들이 잘 자라 새매를 받고 권사로, 집사로, 또 장년부나 차광관부, 전도의 등에서 열심히 신앙 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리고 끝으로 전도하면서 누리는 기쁨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전도하면서 느끼는 감격, 그리고 내가 전한 말씀

을 듣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사람들을 볼 때 느끼는 보람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차를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해 가는 그들을 보면 전자에게 가지는 애정 이상의 그 어떤 복받치는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겠지만 말이에요. 전도자의 사명을 앞으로도 더욱 잘 감당하여 이런 기쁨과 감격을 인생 동안 계속 누리길 원합니다."

작은 헌사들의 예배

정연희(전도사, 유치부 지도)

주일마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유치부에 들어와 달
임 선생님께 맡겨진 유아들은 선생님들과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한 다음 간단한 인사를 하고 예배 시작 15분 전
부터 진행되는 준비 찬송으로 차츰 빠져들기 시작합
니다.

어린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즐겨 받으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다 보면, 입마를 떨어지는 두려움
과 근심은 잠깐이고 담임과의 밀접한 교제 속에 선생
님의 사랑이 무르익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마음을
모아 정말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까불까
불 하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단 5분을 집중하기 힘든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하게 예배드리면
모습은 작은 천사같이도 아름답습니다. 두 눈을 깜빡이
며 말씀에 귀 기울이고 묻는 말에 주저하지 않고 솔직
하게 대답할 때면 진짜 대학생 같기도 하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하면
늘어든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잠언
22장 6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상에 그
뜻된 가지관이 형성되기 전 올바른 가
치관을 심어 주어야 할 귀중한 시
기, 무엇보다 올바른 기독관을 갖
게 하기 위해서는 나쁜 바릇,
고집이 굳어지기 전에 자질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악마
사탄을 이기기 승리하는 삶
을 살게 하기 위하여 경건
의 훈련은 빼 놓을 수 없
습니다.

하나님께 경배, 예배 드
리는 때는 유아라고 예외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영
혼은 어린이나 어린이가

나 차별이 없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인격
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를 우리 교회 유치부
에서 지내도록 지체하지 말고 즉시 보내 주십시오. 우
리 교회 유치부에서는 65명의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어
기들을 정성껏 양육하고 있습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생각하는 어린이

이 계 혁(초등부 교사)

주일 아침이면 밝고 맑은 사랑스런 믿음의 어린이들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모여옵니다. 한
주간 동안 가장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초등
부 어린이들과
함께 예



어느 선생님의 말씀

노미태(장사, 14교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들을 하나님의 품
으로 인도하시고 자녀들을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으로
키우게 해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영아부
에서 시작하여 유년부까지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받으
니 이제라도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들로
자라는 것이 너무 대견스러워 교회에 감사하고 있습니
다. 특히 유년부를 보내니 한층 더 심오한 말씀을 인
도하시고 인형극이나 성경시형 등을 통해 그 달에 배
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배시간이 오전 10시 30분이었어서 어린이들은 부모
님 예배 때문에 일찍 오는 듯게 옵니다. 일찍 온 어린이
들은 반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유년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서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없이 시절 친구들과 예배당에서 장난을 치고
있을 때에 어떤 선생님이 하나님의 집은 신성한 곳이
며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많은 반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유년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서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멀리서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친분 관계
가 있어 서먹해 합니다. 서로가 때문에 나누었으면 좋
겠는데 인원이 너무 많아서 어느 눈치만 보고 있다가 예
배가 끝나면 일순로 급히 돌아가기 바쁩니다.

서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내며 지관다는 것
은 너무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기도로 잘 자
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도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린이

김삼우(소년부)

나는 항상 교회에 다니며 예수님을 배운다. 예수님은
강성할수록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잘 들으셨으며 더욱
성전에서의 예절을 잘 지키셨고 남을 섬기셨다. 하지만
나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런 모습을 쉽
게 발견할 수 없는 것 같다.

예배 드릴 때 늦게 오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늦게 오
고서도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없이 그 고개를 세우고
들어오는 친구도 있다. 특히 예배시간 중에 만화책을
보는 아이들도 있다. 성전에 만화책을 가지고 온다는
것만 해도 잘못된 것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자랑스럽게 보이기 한다. 또한 아침에 9시 50분부터
준비 찬양을 하는데 같이 찬양을 부르는 친구들이 많
지 않다. 예수님 같은데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할수록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라도 남을 헐뜯고 비판하는 모습
을 자주 본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프다. 사실
나도 남을 헐뜯할 때가 종종 있다. 이런 것은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한다. 특히 요즘 선생님들께
바로 인사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기가 힘들다. 교회의 선

배드리가 위한 선생님들의 헌신 또한 눈물겹습니다. 헌
신적인 선생님들의 맑고 눈물의 기도와 가르침이 있기
에 우리 어린이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리
라 믿습니다. 찬안, 인건, 이젠 등 몇몇이 일찍 나와
9시부터 준비기도회로 모여 여러 가지 준비를 한 후 예
배사로 향합니다. 예배실에서는 아름다운 준비 찬송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주일 오전 10시 30분이면 초등부 예배는 하
나님께 드려집니다.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어린이들
을 보면 불수록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입을 열어 찬
송하고 작은 손을 모아 기도하고 귀를 열어 말씀을 듣
습니다.

하지만 가끔 집중하지 못하고 장난을 치는 친구들,
고개를 책상에 묻고 있는 친구들, 오락이나 만화책을
가지고 와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친구들, 지각했으면서
도 당당하게 예배를 방해하며 두근거림을 찾아 앞으로
가는 친구들, 기도시간에 눈을 뜨고 장난을 치는 친구
들, 선생님들이 이런 잘못을 지적하면 간섭으로 여기는
어린이들의 모습으로 인해 조금은 속개됩니다.

교회학교 어린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청소년 문제야 날로 심각하게 가고 있는 이
때에 모든 어린이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생각
하시고 이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정의 신앙교육에 더욱 힘을
써 주시며 늘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가정과 교회
가 하나되어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육할 때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바른 예배를 어릴 때부터 드릴 수 있게 되고
선생님을 존경하며 하나님께서 장차 원하
시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것
입니다.

사랑하는 교회학교 어린이 여러분,
나 하나 때문에 많은 친구들에게 피해
를 주지 않으려는 아름다운 마음과 모
습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참
으로 기뻐하시고 사랑나라의 큰 상을
준비하지 않으실까요.

생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
주시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시다. 그런데 자
기 담임 선생님 외에는 인사하는 모습을 거
의 찾아볼 수가 없다. 학교 선생님과 교회 선생
님께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른 것 같다. 세상 지식
과 말씀의 지식이 물론 다 필요하지만 세상 지식보
다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더
훌륭하다고 본다. 특히 전도사님께서는 더욱 그렇다. 일
주일 동안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 주시려고 노력
하시고 강단 위에서든 회신을 다하시는 전도사님에 대
한 예의가 너무 없는 것 같다. 전도사님께서 들려 주신
말씀을 좀더 열심히 들어야 하지 않을까. 전도사님, 그
리고 전성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
각한다.

세상 모든 사람을 섬기셨던 예수님과 같이 나도 항상
예의와 절서를 지키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어린이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전도하면서의 행복

김지윤(소년부)

7월 26-27일에 우리 소년부는 총원기도원으로 수련
회를 가게 되었다. 27일 수련회가 끝나고 전도하는 길로
들어갔다. 전도하며 배고 굶을 기가 시작됐다. 친구
들은 쪽쓰리였다. 하지만 단 '뭇' 하며 하나님께 전도
하는 '진대' 라고 말했다. 나는 기분이 좋았다. 전도
하는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요?

어느 공원에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행
복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도하는 우리들을
보시고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보람도 있었지만 행
복했다. 전에는 알 수 없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그
기쁨을 가슴에 안고 집으로 향했다. 27일 그 하루는 참
달로웠는 날이었다.

뜻대를 향하여 충현교회가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에 대하여

천상의 환상을 경험한 선지자들은 스랍들의 모습을 매우 특징적으로 묘사한다. 이 묘사를 교회에 적용한다면 교회의 모습은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이다. 두 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해 빛나고, 가슴엔 십자가와 부활의 비일이 가득하고, 두 발은 복음을 실은 마차와 같이 달리고, 양 손은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 넓게 펼쳐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과 나란히, 혹은 두드러진 모습으로 충현교회가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말한다. "한국 교회에서는 충현교회의 전통과 그 역할이 큰 의미를 갖습니다", "충현교회는 본래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이런 말들에는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도 다 포함되어 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잘 인식하고 있듯이 전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생명의 말씀 위에서 있는 전통이 아니면 사람들이 가꾸어온 인위적인 전통이나가 문제일 뿐이다. 그러면 충현교회의 전통은 무엇인가?

『김창인목사와 충현교회』에서는 충현교회의 전통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 윤리관 예배의 집념, 철저한 주일성수, 십일조생활, 보수적인 신앙태도, 교육에의 남다른 열정, 성도들의 순종심과 열심, 신행일치의 가르침과 모범적인 당회 등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것들 중 어떤 것들은 더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하며, 잘 지켜지기도 했고 느슨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새로운 조류'에 지나치게 민감한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비추어 볼 때, 충현교회는 여전히 이 모든 것들을 흔들림 없이 잘 유지해 오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충현교회가 건지해 온 대표적 특징은 제때는 사조에 타협하지 않는 '심지 깊은 신앙의 보수'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은 자칫 마땅한 변화, 성경적인 개혁을 끼리는 각설화된 신앙으로 흘러갈 가능성

이 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 따라서 감성관 목사의 위임 이후 계속 강조되어온 성령님의 인도에 따른 '한결올썩의 신앙', 곧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버린 내러놓을 수 있는 결단의 신앙이 이와 더불어 함께 가질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충현교회의 전통의 범주에 포함되었던 모든 특징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출발할 뿐 아니라, 그 빛 아래서만 명백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할 정체성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정체성의 구체적인 실천사항들로서 '선교적인 지향성을 가진 5대 목표'가 강조되면서 충현교회가 오늘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잘 드러나고 있다. 결국 반백년 시대 사조와 타협하지 않는 복음 중심의 신앙을 견지하면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것이 충현교회가 오늘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일 것이다.

(편집)



예스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저도 앞으로 교회를 위해 일하고 싶어요



양지연
새가족부

먼저 충현교회 46주년 기념일이라는 말을 듣고 축하를 드립니다. 이렇게 오래된 교회의 교인이 된 것이 좋습니다. 교회가 더 많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친구 권유로 교회에 나온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말로만 들던 충현교회가 정작 와보니 좋은 점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지금 저는 새가족부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처음 온 제가 믿음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나고 어서 빨리 공부해서 저도 부서에서 봉사하고 싶어요.

56주년, 66주년 아니 영원히 많은 사람들이 충현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터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6년이 되도록 회를 위해 예스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저도 앞으로 교회를 위해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믿음이 자라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늦게 온 후배들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충현교회 5대 목표를 달성하게 하소서 충현교회 설립 46주년에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아벨의 제사되고 아담이 창세기 정성들인 제단되어 경배를 드릴 때마다 흥분하게 하소서

모세같은 지도자, 요셉같은 귀한 인제 바울같은 천국일꾼, 수없이 걸려나온 천국을 건설하는 곳에 요긴하게 쓰소서

분단된 비극의 땅 우상숭배 많은 민족 마지막에 쓰러지고 시련도 많은 나라 이 민족 복음화하여 제사장 나라 만드소서

오대양 육대륙이 지구촌 이웃나라 주님의 십자가 열면 한민족은 한결같이 넓고 큰 꿈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소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정성을 다하여서 뜨거운 사랑 안고서 실천하게 하소서.

박 철 구(만수집사, 청년2부 부장)

하나님의 청장반는 교회되길



정원근
집사, 12교구

우리 충현이 46주년을 맞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생일을 맞아 한국 교계에 있어서의 우리 교회의 위상을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갈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교회 설립 46주년을 맞은 지의 각오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 왔듯이 앞으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충현의 신앙노선을 따라 굳은 마음과 실천으로 이 신앙을 지켜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

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구역과 교회학교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쏟겠습니다.

앞으로 46주년이 아니라 100년에 이르도록 당회장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일치단결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래도록 좋은 교회로 남아 있기 위해서는 후손 교육에 실패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청장을 받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체물 소식

영아부

말짚던 아기를 전원 심방다짐

영아부는 9월을 '기방의 달'로 정하여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다. 교사들은 각 반에서 평균 10명 정도의 아기를 맡고 있어 이번만큼은 전원 심방하기 위해 부모님들과 시간 약속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기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예수님 안에서 잘 자라도록 할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또한 장기 결석인 아기를 찾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에 감사함으로 소중하게 다짐들을 하였다. 이번 심방은 지난 3월 심방때보다 더욱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란다. (송혜경 통신원)

유아부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 배애했어요

유아부는 오늘 '좋은 날을 주셨어요'라는 말씀을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아름다운 세상과 사람을 만드시고 하루를 쉬게 하심을 배웠어요. 주일을 가리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함을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배만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간식 사먹고 싶은 것 참고 집에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흥분의 유아부 어린이들, 너무 예뻐요. 아직 도 유아부를 모르는 어린이들이 있다면 보내 주세요. (임미순 통신원)

초등부

믿음 안에서 일하게 보낸 방학

뜨거웠던 한여름도 지나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초등부는 여름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을 10번씩 쓰기로 해서 이번 주에 다 쓴 학생들을 교회에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들이 그제 형식적으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었던 것이 아니었다 생각하면서 한 주일 한 주일씩 성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여름방학을 일하게 보낼 수 있었답니다. 또한 9월부터는 학생 전체 심방이 있답니다. 봄에는 전야 심방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이 만나서 학생들의 신앙 생활 얘기도 들어보고 또 서로 교제하며 학생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쁘시지만 선생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학부모님들에게 시간을 내 주셔서 학생 심방을 통하여 학생이나 선생님 모두 신앙이 한 단계씩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미숙 통신원)

중등2부

교사와의 예배 드려

교사들이 4일(이제) 오후에 야외예배를 드렸습니다. 넓고 푸른 잔디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만끽하면서 은혜와 감사의 시간을 보냈다. 교사들은 수련회 이후 약간 느슨해진 마음을 추스리는 한편 후반기 사역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서로간의 친교를 통하여 중등2부의 결속을 다지는 보람있고 행복한 하루였다. (손은경 통신원)

중등3부

우리들의 '작은 음악회'

"만일 내가 있었면 그 일 다 가지고 내 주 주신 은사를 늘 찬송하겠네 ♪"
8월 29일 오전 10시 교육관 507호에서 아름다운 찬양과 바이올린, 피아노의 음이 울려 퍼지는 것 들었습니까? 저희 중등3부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니다. 찬양대의 찬양과 합창, 플루트와 바이올린의 멋진 연주, 세정주, 수화반, 교사중환단 등의 찬조... 우리의 미약한 찬양이, 그리고 자꾸만 넘어지는 우리의 숨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져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 음악회가 끝난 뒤 멋진 리셉션(숙우연)도 있었는데요. 떡, 김밥, 과일, 음료, 과자와 우리 친구들의 웃음,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으셨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송미경 통신원)

청년2부

기쁨은 나누면 두 배, 슬픔은 나누면 절반"

가뭇 동안 이웃을 도와 주고 그 상처를 싸매 줌으로

다시 처음으로

박 우 정(집사, 중등3부 교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봉사를 시작한 지 벌써 6년, 중등3부 한곳만을 고집하며 지나온 시간들.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생겼고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며 우뚝하게도 했던 그날들이 이제는 과연 보람이 되는 날들이었을까.

저도 우리 부서에서든 무슨 일에도든지 선두를 달리는 것 같았고 실제로 나의 발언들이 잘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나의 자만심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다. 평소야, 차, 과장을 하며 쌓여오던 나의 자신감은 금년에 맡은 우리 과와 설복회에서 바닥을 헤매고, 외롭게 준비한 과별 행사에는 극소수의 학생들만 참여하는 등의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나는 깊은 생각과 황당함 속에서도 갖은 변명과 자위로 그 순간들을 모면해 왔다. 6년 전 봉사를 시작하며 며칠을 잠 못이무며 기도했던 열렬과 수심번적 임으며 준비했던 공과공부, 무언가 하나라도 배워보려 애썼던 그 처음의 시간들. 이런 것들은 이제 추억이 돼 버린 지 오래이다. 시간이 흐르며 쌓이는 것은 교만과 다른 교사들에 대한 적의의 말들, 그로 인해 상처받았을 많은 형제, 자매들.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또 함께해 온 모든 성도들 앞에서 죄스러울 뿐이다. 그러나 이렇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시절에서의 나의 작은 바램이 있다면 처음의 그 열렬과 열심을 찾고 싶다는 것이다. 숨지는 날까지 봉사하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간이 갈수록 경혈이 쌓일수록 다시 처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길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

제2회 전국목회자세미나를 마치고

질서와 화합과 감동의 한마당

송 헌 창(강로, 교육훈련원 부원장)



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수행하도록 허락한 충헌교회 당회 앞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목회자세미나는 첫째, 통시대로부터 여러 곳에서 개최되는 비슷한 세미나와 일일이 참석하여 참가 인원수에 대한 우려를 안한 것은 아니나 그 흔한 일간지와 월간지를 통한 광고를 과감하게 생략하였습니니다. 그뿐 아니라 본당 앞에 플래카드조차도 게시하지 않았으며 인위적인 참가자 끌고오기나 질척거를 지양하고 오직 강의내용과 질로 승부를 시도한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이번 목회자세미나는 꼭 필요한 사람에만 관련 문이 열린 것이고 여기에 참가자들은 비록 소수이지만 일당백의 정예인 심자가 군사이고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될 줄 확신합니다.

둘째로, 미국 보수신학의 거장이신 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2월 첫 토요일을 짧은 전국목회자세미나가 지난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두 번째로 개최되어 질서와 화합과 감동 속에 마칠 수 있

비록 처음 오신 자리이지만 한국과 한국 교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저녁 늦은 시간까지 열광해 주셨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가 참가자들의 순수한 마음, 진지한 수장 태도와 혼연일체가 됨으로써 세미나장은 그야말로 감동과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셋째로, 지난 13의 때의 경험을 살려서 세미나의 준비로부터 계획과 진행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참가자들의 질문과 열성,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융화하여 질서와 조화가 돋보이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목회자들은 고되고 힘든 강의의 강행군 속에서도 한 겹 호트러짐없이 또 이질감이 아닌 소극함을 표출하는 일도 없이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니다. 한편, 충헌교회의 성도들도 식사, 간식, 음료 등의 배식, 안내와 차량 유도, 숙소 안내 등의 여러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질서와 화합의 모범을 보인 훌륭한 잔치였습니다.

감사로 우리 안에 선한 열매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결실을 거두실 줄 믿습니다. 이 세미나가 저희를 기뻐할수록 자라잡아가는 것을 볼 때 한국 교회에 복음의 회복과 심자의 능력이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면서 관계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실천하면서 그 가치를 찾아가 보낼 계획이다. 목사님, 강로님, 교사님들과 면회하 전 회원들이 특히 그 가운데는 어려운 회원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 박경희 선교사님에 이어서 'K' 형태의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기도와 물로써 형제 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그동안 육신의 절교와 가정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던 낙담해 있던 형제에게 많은 힘과 용기를 준 것 같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에도 병원측의 외출 허락을 받고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해 젊은 은혜를 받고 있으며 어려운 중에서도 밝은 미소로 소망을 잃지 않았을 볼 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과 섬김이 어려운 당한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됨을 본다. (백영자 통신원)

12교구

일심교구에 협력하여 일구낸 사역

8월 26-28일 강원도 동해 동성교회에서 16명의 전도대원들이 일심 협력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

는 기회를 가졌다. 도착하는 날 동성교회 목사님과 대원들이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동강, 동사부강, 동강, 반강, 도강강, 부녀회강, 경찰관, 과출소강, 아파트 관리소강 등 30여명에게 칸타를 선물, 쪽복숭아, 전도지, 화장지 등을 전달하고 절도와 절교한 참복을 요청하며 교회에 대해 전진감과 우호적인 마음을 갖도록 하였다. 계속 교회 내로 주님 무두가 절교잔치에 참석하였다. 김필수 목사님이 당장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동성교회 목사님이 전교를 통해 나누어 하나님을 전하였다. 그들 중에는 처음 교회당 안을 들어와 보는 사람들도 많았다. 침술봉사, 미미봉사, 영정사진 촬영 봉사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였다. 저녁 부흥집회에서는 결심자가 22명이나 생기고 믿음이 약한 자 2명이 새롭게 결심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전도대원들은 비가 오는 가운데도 봉사와 축조헌전, 집회 참석, 새벽기도회 등을 통하여 믿음의 지주대로 마음은 기뻐서 모든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뜻깊은 전도 여행이었다. (12교구 통신원)

